

지역 소식통

정읍시, 18일 전국 양봉인의 날&벌꿀축제 개최

정읍시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내장산문화광장에서 전국 1만여 양봉농가가 참여하는 최대 축제인 '전국 양봉인의 날&벌꿀축제'를 개최한다.

행사 첫날인 18일에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양봉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꿀벌·병·해충관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양봉인 노래제창과 초청 가수 축하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19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기념식이 진행되고 양봉인들의 단합력을 높이기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양봉산물기자재 부스를 마련해 신규 양봉기구, 기자재, 꿀과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등을 전시 판매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이학수 시장은 "연이은 벌꿀홍작과 병·해충으로 지쳐있는 전국 양봉농가들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65세 이상 어르신 보선소 진료비 무료

전북 고창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보선소 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건기관(보건의료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시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연인원 4만2000명에게 연간 6200만원의 경제적 혜택이 기대된다.

최근 고창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고창군 보건의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민선 8기 삼덕섭초는 출범이후 '지역 노인건강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추진해 왔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기고 삶의 만족도를 끌어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붉은노을축제 성료

변산해수욕장서 다양한 컨셉으로... 5만여명 방문객들에 즐거움 선사

변산해수욕장의 붉은노을과 함께한 2023 부안붉은노을축제가 내년의 붉은노을을 기약하며 지난 15일 막을 내렸다.

이번 붉은노을축제는 레드와인페스타, 붉은노을 재즈 페스티벌, 붉은노을 등요제, 스카이갤러리 등 붉은노을과 어울리는 다양한 컨셉으로 축제장을 찾은 5만여명의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베드와인페스타는 프랑스 보르도 와인축제장을 연상케하는 축제장으로 꾸미고 부안의 특산품인 오디와인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와인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붉은노을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오디와인 홍보와 함께 이국의 색다른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붉은노을 재즈 페스티벌'은 국내에서 활동중인 재즈 뮤지션들이 감미로운 선율에 맞춰 다양한 곡을 선보여 재즈와인페스타를 더욱더 돋보이게 했다.

영화 '변산'을 모티브로 제작한 대형모래조각 포토존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모래조각위에 올라가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붉은노을과 함께 추억을 남기기도 했다.

김종문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장은 "이번 2023 부안붉은노을축제에서는 붉은노을과 어울리는 컨셉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추억기회를 선물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단풍철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여건 마련

정읍시, 28일~11월 12일까지 행정질서 집중확립기간 지정

정읍시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올바른 행정문화 정착과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올해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와 가을 단풍철 유동인구 증가로 전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정읍 내장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장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제공을 위해 지난 13일 내장산 단풍철 행정 질서 확립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정읍경찰서와 정읍소방서, 내장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내장사, 내장산 상가면협의회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련 기관별 담당 운영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과 함께 화재행위, 바가지요금,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관광객 이용 편의와 관광 이미지 제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역의 관광 이미지를 실

추시하기는 5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를 단풍철 행정 질서 집중 확립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계도와 함께 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정읍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단풍 관광객의 각종 불편 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와 유관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통해 행정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첫째 300만원 등 출산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전북 고창군이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5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10월 13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현재 고창군 신생아 1명당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

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 다섯째 이상부터 1000만원이다.

고창군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추진해 왔다.

출산장려금지원 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자경으로 하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

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계좌로 지급된다.

삼덕섭 고창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45회 자연보호 중앙연맹 전라북도 선포식이 지난 15일 정읍시 내장산위터파크에서 개최됐다.

## '자연보호 중앙연맹 선포식'

정읍시, 내장산위터파크서 15일 개최

제45회 자연보호 중앙연맹 전라북도 선포식이 지난 15일 정읍시 내장산위터파크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시립국악단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미래세대를 책임질 어린이들의 자연보호헌장 낭독, 내빈 소개, 유공자포상, 기념사, 환영사, 축사, 폐회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자연보호헌장은 자연보호를 위한 범국민적 결의를 집약해 1978년 10월 5일에 선포됐다. 헌장 전문에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자연생태계의 법칙과 조상들의 자연보호관을 소개하고, 산업혁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자연파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실천사항에는 자연보호에

대한 올바른 환경윤리의 확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헌장의 전문처럼 시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도시 조성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선포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염영선·임승식 도의원, 황혜숙·이상길·이도형·김석환 시의원, 자연보호협회 회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10주년 기념 행사

고창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고창고인돌공원 일원에서 (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주관으로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10주년 기념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아동 청소년 활동가들의 댄스, 합창 등 축하무대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 조도순 공동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주민과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 등 생물권보전지역 10년의 활동 기록을 전시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겼다.

이외에도 활동전시, 곤충탐사놀이, 생태주먹밥 만들기, 푸드 아트테라

피, 힐링체험, 제로챌린지 등 환경보전 실천 부대행사가 진행되어 풍성함을 더했다.

이양수 협의회장은 "고창의 세계유산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회원들을 격려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실천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삼덕섭 고창군수는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이름다운 이야기 10년은 군민의 소중한 생태적 가치의식과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기 가장 좋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자연생태도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